

손 닿지 않는 키오스크...여전히 장애인에겐 ‘높은 벽’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하루 전...휠체어 타고 키오스크 이용해보니

화면 조절 기능 없고 스크린 높아...점자·음성 안내도 미비
광주 공공기관·지자체·병원 등 예산난 호소하며 교체 지연

광주시 광산구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키오스크. 휠체어에 직접 앉아 키오스크에 다가가 보니, 키오스크에 손이 닿지도 전에 키오스크 기계에 다리가 먼저 ‘탁’ 걸렸다. 손을 뻗어 봐도 터치식 화면에 손이 닿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옆을 보고 앉아 키오스크를 누르려 했다. 그런데 이제는 키오스크 맨 위에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버튼을 도저히 누를 수가 없었다.

오는 28일부터 키오스크를 설치·운영 중인 공공 및 민간 사업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F)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장애인들에게 ‘벽’이 있다. BF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무인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 기능을 비롯해 점자·음성 안내, 고대비 화면, 큰 글씨와 돋보기 기능, 수어 영상이나 시각적 대체 안내 등을 갖춘 기기를 가리킨다.

민간 업체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BF 키오스크 도입을 미루고 있을뿐 아니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조차 의무 설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대부분의 키오스크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직접 휠체어를 타고 충장동 행정복지센터와 동구정 앞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보니, 기기가 일체형 구조여서 휠체어가 안쪽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 화면에 손을 대기 위해 몸을 비틀거나 옆으로 돌아서야 했다.

광산구 첨단 종합사회복지관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화면 높이 조절 기능이 없고 터치스크린 위치가

지나치게 높았다. ‘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만든 키오스크다 보니 휠체어 이용자는 아예 누를 수 없는 높이에 버튼이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 기기는 음성 안내가 아예 없거나, 구형 이어폰을 꽂아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화면 밝기도 어두워 글씨를 읽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지난 25~26일 광주시 내 공공시설과 각 자치구 무인민원발급기, 동구 충장로·동명동 일대 등 키오스크가 설치된 50여 곳을 직접 둘러봤다. 이들 시설 중 어린이도서관 등 10여곳을 제외하고는 BF 키오스크 기준에 어긋난 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거나 키오스크 화면을 낮춰 앉은 자리에서도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 주는 ‘화면 내리기’ 기능이 없는 경우부터 돋보기·고대비 기능이 없는 경우, 점자 기능이 없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지난해 1월 28일 개편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학교, 병원뿐 아니라 10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바닥면적 50㎡(15평) 이상인 시설은 키오스크를 새로 설치할 경우 배리어프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도입한 키오스크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까지 전면 교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은 “예산 타령”을 하며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직전까지도 키오스크 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현재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86대를 의무 교체해야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단 한 건도 BF 키오스크로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야 겨우 무등·사직·산수도서관 등에 설치된 32대를 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체할 계획을 밝힌 데 그쳤다.

동구는 키오스크 48대를 교체해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 중 3대를 교체하겠다는 계획만 세웠다. 오는 28일까지 서구는 35대 중 6대, 남구는 46대 중 27대만 교체한다. 북구는(129대), 광산구는(50대)는 “점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입장뿐, 구체적인 교체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복지부 차원의 별도 보조나 재정 지원이 없어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예산이 없어 못 교체한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BF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단가가 높아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이 크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모두 고려한 제품도 아직 제한적”이라며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는 점 등에서, 지자체가 장애인 인권에 무관심했던 것을 예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유예기간을 두고도 왜 미뤄지고 방치된 건지 이해하기 어렵고 단계적으로 바꿔 나갔다면 예산부담도 적을텐데 아쉽다”며 “소상공인은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구나 보조 인력, 호출벨이 있다면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완화조건이 있는데, 예외조항 때문에 입법 취지도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뿐만 아니라 점자로가 없어 장애인이 매장 자체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키오스크 개선과 함께 상가 접근성 등 전반적인 환경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



26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카페에서 기자가 휠체어를 타고 키오스크를 조작하고 있다.

여순사건 보상금 가로챈 변호사 징계 개시

피해 금액 총 6억여원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받아낸 형사 보상금을 가로챈 변호사에게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26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여순사건 국가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 A 변호사에게 징계를 신청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A 변호사가 지난 1948년 내란, 포고령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

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유족의 형사보상금 1억 1800여만원을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법원에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들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은 6억여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또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서를 작성하고도 보상금을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일보도 유족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듣고자 A 변호사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해수부 ‘올해의 섬’에 여수 거문도 선정

여수 거문도(사진)가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의 ‘병오년 올해의 섬’으로 지정됐다.

거문도는 태풍 등 파도와 거센 바람에 작은 선박들의 피항처 역할을 하는 섬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섬 전역은 기암괴석과 동백나무 숲길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삼치·갈치·전갱이·미역·다시마 등 특산물도 풍부하고 거문도 6개 마을에서 했던 풍어제·고두리영감제(덕촌마을)·거북제(변촌마을)·용왕제(죽촌마을)·풍어제(거문마을) 등은 소중한 섬 지역 문화 유산으로 꼽힌다. 지금은 거문도수협이



주도해서 치르면서 인구 감소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대상포진 접종 대상 확대

75세 이상 중증 장애인 포함

전남도는 올해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75세 이상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해왔다.

도는 이어 2027년 70세 이상, 2028년 65세 이상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한다.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대상으로 22개 시·군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생백신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심한 장애인은 생백신의 경우 접종 시행비 2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백신은 2회 접종 기준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눈·강풍 예보...체감온도 ‘뚝’

27일 새벽부터 눈...최저 영하 8도

광주·전남 지역에 최고 3cm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광주와 전남서부 지역에 1~3cm의 눈이 내리겠다고 26일 예보했다.

광주 동부 지역에도 0.1cm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당분간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최저 영하6~영하1도, 최고 3~7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나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4~1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를 보이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7~영하2도까지 떨어지겠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7~영하2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 머물고,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8~영하1도에 분포하겠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와 전남내륙에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산지에는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 등 전남동부남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아외 활동을 할 때 스레기 소각 금지 등 불씨 관리에 주의하고 산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이
기
원
단
상
에
세
이
집

정여

312쪽 | 값 16,000원

누가 호박꽃도 꽃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토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진 않지만 실속파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표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못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태어날 생(生)이냐,
살아갈 생(生)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서점 판매
광주(충장서림, 영풍문고)
나주(종로서적), 목포(연산서적)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익산(동아서점)